

#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 —에스겔 37:15-28을 중심으로—

박영복\*

### 1. 들어가는 말

에스겔서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연구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는 신학적인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적인 요소이다.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생활은 에스겔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의 동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실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에스겔서 20장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암시하는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생활은 다른 세대들과 달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있음을 시사한다.<sup>1)</sup>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 속에서, 에스겔 33:21의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포로지에 전달된 이후에 에스겔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한다.<sup>2)</sup> 그렇다면,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에스겔의 회복의 메시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에스겔서 본문의 언어적인 정보는 이러한 정황적 부조화에 대하여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일까?<sup>3)</sup> 둘째로, 에스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조교수. ichpyb@hanmail.net.

- 1) 다른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노를 막으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만(겔 20:9, 14, 22), 그 이후의 포로세대에게는 그들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겔 20:30-31). Robert R. Wilson, "An Interpretation of Ezekiel's Dumbness", *VT* 22 (1972), 91-104; 이학재,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144; 크리스토퍼 라이트, 『에스겔 강해: 새 마음과 새 영』,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8), 94-98; C. J. H. Wright, *The Message of Ezekiel: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2001).
- 2)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금씩 차이가 드러나긴 하지만 겔 33장부터 심판의 메시지에서 회복의 메시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Keith W. Carley,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218; John W. Wevers, *Ezekiel* (Grand Rapids: Eerdmans, 1982), 249; H. V. D. Parunak, "Structural Studies in Ezekiel",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78), 158.
- 3) 이와 관련된 공시적인 연구(synchronic approach)는 Thomas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VTSup 76 (Leiden: Brill, 1999), 105-106; P. M. Joyce, *Divine Initiative and*

겔서에서 반복적인 공식들(formula)과 함께 분절적인 요소들이 본문(text)을 수많은 단편들로 자르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한다.<sup>4)</sup>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와 상당히 체계적이고 주제적인 방식으로 메시지가 배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sup>5)</sup>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내부구조의 구성에 대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의 내부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메시지와 연결하게 될 때, 정황적으로 부조화를 이끄는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에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을까?

본 논고는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에스겔 37:15에서 28절의 히브리어 본문(MT)을 본문-언어학적 분석(text-linguistic analysis)을 통하여 구문적 계층 구조(syntactic hierarchy)를 구성하고,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언어적 단편들을 연결하여 메시지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단락은 대체로 짧은 길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반복구와 화자와 청자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다양한 언어적 단편들이 발견되며, 절의 형태에 따른 계층 구조적인 기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에스겔 37:15에서 28절까지의 연구가 에스겔서의 본문의 특징과 구문적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문-언어학적인 단락의 경계에서부터 출발하여 단락의 구문적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차례로 그 신학적 주제를 드러나게 하는 좋은 안내자 역할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어떻게 37:15에서 28절까지의 신학적 함의를 발견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제안도 동시에 소개하고자 한다.

## 2. 에스겔 33-39장의 본문—언어학적 구조

먼저, 에스겔 37장의 본문 분석에 앞서, 근접 문맥에 대한 본문-언어학적

---

*Human Response in Ezekiel*, JSOTSup 51 (Sheffield: JSOT Press, 1989), 104-105; R. W. Klein, *Israel in Exile: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96; P. R. Ackroyd, *Exile and Restoration. A Study of Hebrew Thought of the Sixth Century BC* (London: SCM Press, 1968), 104-117; L. C. Allen, *Ezekiel 20-48*, WBC 29 (Dallas: Word Books, 1990), 179; Walther Zimmerli, *Ezekiel 2* (Philadelphia: Fortress, 1983), 247; D. I. Block, *Ezekiel (Chapters 25-48)* (Grand Rapids: WEPC, 1998), 364 등을 참고하라.

4) L. C. Allen, *Ezekiel 20-48*, 170; D. I. Block, *Ezekiel (Chapters 1-24)*, 30-39.

5) P. M.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21.

인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sup>6)</sup> 본문-언어학적 입장에서, 33:21a의 ‘וַיְהִי + 시간 표시’는 새로운 이야기(narrative)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표시이다.<sup>7)</sup> 그 다음에 나오는 표시가 40:1에서 다시 출현하기 때문에, 33:21a-39:29c는 하나의 이야기 단락을 구성한다. 33:21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총 7개의 하부 단락으로 구성된다. 짧은 보고 형식의 33:21b-22 단락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라는 반복구절이 ‘Wayyiqtol + 명시된 주어’의 형태로 33:23a, 34:01a, 35:01a, 36:16a, 37:15a, 38:01a에서 총 6번 나타남으로서 나머지 6개의 하부 단락을 형성한다. 그래서 33:21a-39:29c의 내부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sup>8)</sup>

33:21a וַיְהִי + 시간 표시

- └ 33:21b-22f 예루살렘 멸망과 에스겔이 말할 수 있게 됨
- └ 33:23a-33d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첫째 단락
- └ 34:01a-31e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둘째 단락
- └ 35:01a-36:15d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셋째 단락
- └ 36:16a-37:14g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넷째 단락
- └ 37:15a-28c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다섯째 단락
- └ 38:01a-39:29c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여섯째 단락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짧은 보고(33:21b-22f) 후에 반복구로 이어지는 6개의 회복의 메시지들이 뒤이어 따라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메시지는 21절에서 시작되고 짧은 보고에 해당하는 33:21b-22f의 단락이 뒤따라오는 6개의 회복의 메시지에 서론 혹은 정황적 배경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37:15a-28c의 단락은 회복의 메시지의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메시지이다. 이러한 본문-언어학적인 근접 문맥 구조를 바탕으로 37:15a-28c의 단락이 어떠한 구문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논고는 이처럼 근

6) 에스겔 33-39장의 본문-언어학적 분석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Chapter 2. Structure and Translation of Ezekiel 33-39’와 ‘Chapter 3. Function and Discourse Structure of Ezekiel 33-39’를 참고하라. Y. B. Park, *Restoration in the Book of Ezekiel. A Text-Linguistic Analysis of Ezekiel 33-39*, ACEBTSup 11 (Bergambacht: Uitgeverij 2VM, 2013), 17-124.

7) E. Talstra, “A Hierarchy of Clauses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Ellen van Wolde, ed., *Narrative Syntax and the Hebrew Bible* (Leiden: Brill, 1997), 102.

8) 메이필드(T. D. Mayfield)의 에스겔서의 문법적인 거시 구조(וַיְהִי + 시간 표시)와 내부 구조(Wayyiqtol + 명시된 주어) 또한 필자의 본문-언어학적 구조를 지지한다. T. D. Mayfield, *Literary Structure and Setting in Ezekiel*, FAT II/43 (Tübingen: Mohr Siebeck, 2010), 77-124.

접 문맥에 대한 본문-언어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단락의 경계를 확립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 단락의 메시지는 회복에 대한 전체의 신학적 메시지에 조화롭게 구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3. 에스겔 37:15-28 분석

본문 분석에 앞서, 먼저 에스겔 37:15-28의 히브리어 본문(MT)을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의 단위로 단편을 만들어서 본문을 64개의 단편으로 만든다.<sup>9)</sup> 전체 본문-언어학적인 근접 문맥에서 밝힌 것과 같이, 하부 구조의 시작을 알리는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וַיְהִי דְבַר יְהוָה אֵלַי)’라는 반복구절이 37:15a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출발점으로 각각의 단편화된 절들을 문법적 구문적 연관성을 통하여 상위(mother clause)와 하위(daughter clause), 혹은 등위(parallel)의 관계를 결정하고 절들의 계층 구조를 연결하고 구성해 나아간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참여자(participant)들의 변화와 움직임, 절의 형태, 화자와 청자 등을 고려하여 연결하게 된다. 이러한 언어적인 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 구문적인 상위, 등위 혹은 하위 관계 결정
- 문법적인 형태들: 절의 형태, 절의 구성 요소들의 구문 형태, 치환과 생략의 형태
- 본문-구문적 형태들: 참여자와 참여자 형태
- 어휘적 형태들: 어휘와 절들의 반복, 주제어의 사용, 동의어 및 의미적 연관 표현 사용

이들 언어적 변수들이 계층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이들은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쉽게 발견되는 변수들이고 체계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체계적인 질서가 본문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구체적인 구문론적 논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변수들이 상당히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본문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그 사용된 형태를 규칙적인 방식으로 읽어내는 작업은 그 자체로 가치가

9) ‘<표 2> 에스겔 37:15-28의 구문적 계층 구조’를 참조하라.

10) Timothy Walton, *Experimenting with Qohelet: A Text-linguistic Approach to Reading Qohelet as Discourse*, ACEBTSup 5 (Maastricht: Uitgeverij Shaker Publishing, 2006), 11-13.

있다. 셋째,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본문의 구조와 단락의 연결성을 구성하는 다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은 표면적으로 본문에 드러난 언어적 변수들이 본문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의미 규정에 상당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 이들 표면적 변수들을 기준으로 히브리어 본문의 계층 구조를 구성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계층 구조가 함의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론적 전제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들 변수들 혹은 변수들의 조합을 통하여 구문적 계층 구조에서 각기 다른 수준들(levels), 즉, 상위, 등위, 하위 등을 밝혀낼 수 있다. 둘째, 이렇게 구성된 계층 구조들은 특정한 본문의 경계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계층 구조는 구획화된 본문의 담화적 기능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 3.1.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한 본문 분석

본문의 계층 구조를 구성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본문을 화자와 청자의 관점에서 소단락들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화자와 청자가 아무런 예고적인 표시 없이 바뀌게 되면 본문의 계층 구조를 구성할 때 단락을 구분하고 연결하는 데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계층 구조를 구성할 때 동시에 분석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화자-청자의 분석으로 소단락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다.

37:15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함(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37:16a-17b	↳ 상징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 → 에스겔)
37:18a	↳Waw
37:18d-e	↳ <u>에스겔의 동료들의 질문 (에스겔의 동료들 → 에스겔)</u>
37:19a	↳ 선포명령 I (דְּבַר אֱלֹהִים, 하나님 → 에스겔)
37:19b-h	↳ <u>하나님-에스겔의 동료들</u> (선포내용: 하나님 → 에스겔의 동료들)
37:20a-c	↳ 상징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하나님 → 에스겔)
37:21a	↳ 선포명령 II (וַדְּבַר אֱלֹהִים, 하나님 → 에스겔)
37:21b-28c	↳ <u>하나님-에스겔의 동료들</u> (선포내용: 하나님 → 에스겔의 동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다(15a-b). 하나님(화자)이 에스겔(청자)

에게 일련의 상징행동에 대해 지시하고(16a-17b), 에스겔의 동료들(בְּנֵי עִמָּוֶל)이 그 행동의 의미를 물을 때(18d-e)에 두 번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한다(19a, 21a).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는 אָמַר יְהוָה 절(19b, 21b)에 의해 소개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에스겔의 동료들에게 선포하는 직접화법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순서적으로, 그 지시받은 상징행동을 말로 설명하게 하고(19c-h), 에스겔이 그 행동을 수행한 후(20a-c), 그 상징행동에 대한 의미를 선포하게 된다(21c-28c). 하나님의 메시지의 측면에서 보면, 본문은 18a를 중심으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상징행동에 대해 지시하는 내용(16a-17b)과 메시지의 수신자들 앞에서 그 상징행동을 보여주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선포하는 내용(19a-28c)으로 구분된다. 화자-청자의 움직임에 따른 자세한 참여자들의 분석은 <표 1>에 요약되었다.

<표 1> 에스겔 37:15-28의 화자-청자 분석

절	화자	주요참여자(PNG <sup>11)</sup> )	청자
15a-15b	에스겔	하나님 말씀(3SgM)	독자 <sup>12)</sup>
16a-18c	하나님	에스겔(2SgM)	에스겔
18d-18e	에스겔의 동료들	에스겔(2SgM)	에스겔
19a	하나님	에스겔(2SgM)	에스겔
19b	에스겔	하나님(----)	독자
19c-19h	하나님	하나님(1Sg-)	에스겔의 동료들
20a-21a	하나님	에스겔(2SgM)	에스겔
21b	에스겔	하나님(----)	독자
21c-28c	하나님	하나님(1Sg-)	에스겔의 동료들

### 3.2. 구문적 계층 구조

히브리어 본문은 단순히 일직선적으로(linear form)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태를 가진 언어 체계가 대개 그렇듯이 계층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로 정보를 인식해야 한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언어적 정보들은

11) 인칭(person), 수(number), 성(gender)을 말한다.

12)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1차 청중인 에스겔의 동료들과 함께 에스겔서를 읽게 될 독자들(암시된 청중들)을 포함한 집단에 대한 표현이다.

각각의 절과 절 사이 혹은 정보의 단편과 단편 사이의 연결 고리들을 파악하여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문의 골격 구조가 되는 일차적인 정보(foreground information)와 그의 배경이 되는 이차적인 정보(background information)로 나눌 수 있게 된다”.<sup>13)</sup> 이렇듯 히브리어 본문이 계층적인 구조로 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특정한 본문의 번역이나 해석에 앞서서 그 본문의 계층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구문적 계층 구조를 구성하기 위하여 어떤 유사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각각의 절들을 연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일 먼저 살펴볼 연결은 동일한 절의 형태와 *waw*의 기본적인 기능에 관련된 연결이다.

37:16c (Impv, 2SgM) קְחֵךְ עֵץ אֶחָד

└ 37:16d (Impv, 2SgM) וְכָתַב עָלָיו

└ 37:16f (Impv, 2SgM) וְלָקַח עֵץ אֶחָד

명령문인 16c는 그 하위 구조로 4개의 다른 명령문들을 지배하게 된다(16d, 16f, 16g, 17a). 16c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명령문들은 *waw*를 가지고 있어서 앞의 부분의 연속됨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waw* + 명령문’이라는 형태뿐만 아니라 문장 순서에 있어서도 유사한 구조(*waw* + 동사 + 목적어 혹은 보어)로 되어 있어서, 4개의 명령문들은 등위 관계(parallel)로 연결되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연결은 명령문과의 연결에서 절의 형태에 따른 번역적인 이슈를 설명하는 것이다.

37:17a (Impv, 2SgM) וְקָרַב אֲתָם אֶחָד אֶל-אֶחָד לְךָ לְעֵץ אֶחָד

└ 37:17b (WQtl, 3Pl-) וְהָיוּ לְאֶחָדִים בְּיָדְךָ

외관상으로 절의 형태가 다르고 주어의 인칭이 달라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2인칭 남성 단수 ‘너’(에스겔)가 동일하게 출현하고 있으며, 17a에서 목적어로 사용되었던 ‘그들’(אֲתָם, 막대기들)이 17b에서는 주어(וְהָיוּ)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앞 절의 목적어나 보어가 그 다음 절에서 주어로 사용되는 것은 언어적으로 종속된 관계로 여겨진다. 이번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17b가 17a에게 하위로 연결된다.

13) 박영복, “에스겔 37:7에 나타난 인칭의 불일치 해석”, 『교회와 문화』 31 (2013), 133.

이 때, 명령문을 뒤따르는 WQtl(waw + 완료형)절은 법(modal sense)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해야 한다’(must)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17b를 번역하면, ‘그리고 너의 손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로 된다.

또한 가장 근접한 거리의 같은 절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20a의 WQtl의 경우에, 바로 윗 절인 19h의 WQtl에 연결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19c-h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동료들에게 직접화법의 형태로 선포하시는 단락이고 20a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단락이기 때문이다. 청자가 바뀌어서 서로 다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20a의 WQtl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19a의 명령문에 하위로 연결된다. 결국 20a가 명령문인 19a를 뒤따르게 됨으로써, ‘그리고 그 막대기들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세 번째 연결은 절의 형태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를 통하여 연결된다. 첫째, 화자-청자가 서로 같은 부분으로 18b-c는 어떤 조건을 말하고 19a는 그 조건에 수행해야 하는 명령에 해당한다. 에스겔의 동료들이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직접 인용 부분(18d-e)은 하나님의 말을 잠시 중단시키지만 이차적 정보로 계층 구조에서 18c의 하위에 두었다. 둘째, 참여자(בְּנֵי עַמָּךְ, ‘너의 백성들의 자녀들’)가 18b에서 처음 출현하고, 19a의 ‘그들’(אֲלֵהֶם)이 이 참여자를 지시하는 대명사로 판명된다. 그러므로 참여자의 존재 여부로 인하여, 똑같은 명령문의 16c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18b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 연결은 다음과 같다.

37:18b (xYqt, 3PIM) כְּאֲשֶׁר 'אָמַרְנוּ אֵלֶיךָ בְּנֵי עַמָּךְ  
 └ 37:19a (Impv, 2SgM) דַּבֵּר אֲלֵהֶם

네 번째에 관련된 사항은 계층 구조의 형성에 있어서 주어와 절의 형태에 관련된 내용이다.

37:21c (PtcA, -SgM) הִנֵּה אֲנִי לֹקֵחַ אֶת-בְּנֵי יִשְׂרָאֵל מִבֵּין הַגּוֹיִם  
 └ 37:21e (WQtl, 1Sg-) וְקִבַּצְתִּי אֹתָם מִסְבִּיב  
 └ 37:21f (WQtl, 1Sg-) וְהִבֵּאתִי אוֹתָם אֶל-אֲדָמָתָם  
 └ 37:22a (WQtl, 1Sg-) וְעָשִׂיתִי אֹתָם לְגוֹי אֶחָד בְּאֶרֶץ בְּהָרֵי יִשְׂרָאֵל  
 └ 37:23b (WQtl, 1Sg-) וְהוֹשַׁעְתִּי אֹתָם מִכָּל מוֹשְׁבֵתֵיהֶם  
 └ 37:23d (WQtl, 1Sg-) וְטִהַרְתִּי אוֹתָם  
 └ 37:26a (WQtl, 1Sg-) וְכָרַתִּי לָהֶם בְּרִית שְׁלוֹם



- ┆ 37:26c (WQtl, 1Sg-) וְנִתְּתִים
- ┆ 37:26d (WQtl, 1Sg-) וְהִרְבִּיתִי אוֹתָם
- ┆ 37:26e (WQtl, 1Sg-) וְנִתְּתִי אֶת־מִקְדָּשִׁי בְּתוֹכָם לְעוֹלָם
- ┆ 37:27b (WQtl, 1Sg-) וְהָיִיתִי לָהֶם לְאֱלֹהִים

상징행동의 해석의 단락이자 하나님의 두 번째 선포에 해당하는 21c-28c는 1인칭 주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1개의 PtcA절과 10개의 WQtl절들이 하나님의 주요 메시지를 나타내며 계층 구조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21c의 ‘나’(אני, 하나님)라는 참여자의 출현으로 시작해서 1인칭 주어가 미래에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수행할 11가지 일들(PtcA: 21c; WQtl: 21e, 21f, 22a, 23b, 23d, 26a, 26c, 26d, 26e, 27b)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연결은 절의 형태에 관련된 미세 구조에 대한 것이다.

- 37:27b (WQtl, 1Sg-) וְהָיִיתִי לָהֶם לְאֱלֹהִים
- | ┆ 37:27c (WXYq, 3PIM) וְהָמָּה יְהוָה לְעָם
- ┆ 37:28a (WQtl, 3PIM) וַיְדַעוּ הַגּוֹיִם

전술한 바와 같이, 27b는 ‘WQtl + 1인칭 주어’로 열한 번째 주요 메시지에 해당한다. 27c의 WXYq절의 경우, *waw*가 앞부분의 연속된 형태임을 암시하면서, 27b의 보어였던 ‘그들’(לָהֶם)이 27c에서 주어(הָמָּה)로 사용되면서 강력한 연결성을 표시한다. 더욱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לְאֱלֹהִים, 27b)과 하나님에게 ‘백성’이 되는 것(לְעָם, 27c)이 서로 잘 대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때, 미완료(Yiqtol)는 연결된 앞 절의 결과 혹은 효과를 표현한다. 28a의 WQtl의 경우, 새로운 참여자 ‘הַגּוֹיִם’이 처음 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의 유사성과 종속절인 28b에서 참여자 ‘אני’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27b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나 주어가 3인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의 단계(next step)를 표현하는 형태로 인식하여 *waw*를 ‘그리고 나서’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지금까지 몇 가지 계층 구조와 관련된 절들의 연결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화자-청자를 바탕으로 소단락으로 나누고 참여자들과 절의 형태 그리고 언어적 변수들을 통하여 본문의 계층 구조를 <표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 에스겔 37:15-28의 구문적 계층 구조

계층구조	절	형태 <sup>14)</sup>	P/N/G
וַיְהִי דְבַר יְהוָה אֵלַי	37:15a	WayX	3sgM
לֵאמֹר	37:15b	InfC	-----
וְאָתָּה	37:16a	CPen	-----
בְּיָדְךָ	37:16b	Voct	-----
קָח לְךָ עֵץ אֶחָד	37:16c	Impv	2sgM
וּכְתֹב עָלָיו	37:16d	Impv	2sgM
לְיִהְיוֹדָה וּלְבַנֵּי יִשְׂרָאֵל חֲבֵרוֹ	37:16e	NmCl	-----
וּלְקַח עֵץ אֶחָד	37:16f	Impv	2sgM
וּכְתֹב עָלָיו	37:16g	Impv	2sgM
לְיִוֹסֵף עֵץ אֲפְרַיִם וְכָל־בֵּית יִשְׂרָאֵל חֲבֵרוֹ	37:16h	NmCl	-----
וְקָרַב אֹתָם אֶחָד אֶל־אֶחָד לְךָ לְעֵץ אֶחָד	37:17a	Impv	2sgM
וַיְהִי לְאֶחָדִים בְּיָדְךָ	37:17b	WQtl	3pl-
	37:18a	Defc	-----
כַּאֲשֶׁר יֹאמְרוּ אֵלֶיךָ בְּנֵי עַמְּךָ	37:18b	xYqt	3plM
לֵאמֹר	37:18c	InfC	-----
הֲלוֹא־תִגִּיד לָנוּ	37:18d	xYqt	2sgM
לְמַה־אֵלֶּה לְךָ	37:18e	NmCl	-----
דְּבַר אֱלֹהִים	37:19a	Impv	2sgM
כֹּה־אָמַר אֲדֹנָי יְהוִה	37:19b	xQtl	3sgM
הֲנִי אֲנִי לְקַח אֶת־עֵץ יוֹסֵף	37:19c	PtcA	-sgM
אֲשֶׁר בְּיַד־אֲפְרַיִם	37:19d	NmCl	-----
וּשְׁבֹטֵי יִשְׂרָאֵל חֲבֵרוֹ	37:19e	Defc	-----
וְנָתַתִּי אוֹתָם עָלָיו אֶת־עֵץ יְהוֹדָה	37:19f	WQtl	1sg-
וַעֲשִׂיתֶם לְעֵץ אֶחָד	37:19g	WQtl	1sg-
וַיְהִי אֶחָד בְּיָדִי	37:19h	WQtl	3pl-
וַיְהִי הָעֵצִים	37:20a	WQtl	3pl-
אֲשֶׁר־תִּכְתֹּב עֲלֵיהֶם	37:20b	xYqt	2sgM
בְּיָדְךָ לְעֵינֵיהֶם	37:20c	Defc	-----
וְדַבַּר אֲלֵיהֶם	37:21a	Impv	2sgM
כֹּה־אָמַר אֲדֹנָי יְהוִה	37:21b	xQtl	3sgM
הֲנִי אֲנִי לְקַח אֶת־בְּנֵי יִשְׂרָאֵל מִבֵּין הַגּוֹיִם	37:21c	PtcA	-sgM
אֲשֶׁר הִלְכוּ־שָׁם	37:21d	xQtl	3pl-
וּקְבַצְתִּי אֹתָם מִסְּבִיב	37:21e	WQtl	1sg-
וְהִבֵּאתִי אוֹתָם אֶל־אֲדֹמָתָם	37:21f	WQtl	1sg-
וַעֲשִׂיתִי אֹתָם לְגוֹי אֶחָד בְּאֶרֶץ בְּהַרֵי יִשְׂרָאֵל	37:22a	WQtl	1sg-
וּמִלֶּךְ אֶחָד יְהִיָּה לְכֹלָם לְמֶלֶךְ	37:22b	WXYq	3sgM
וְלֹא יְהִיָּה עוֹד לְשְׁנֵי גוֹיִם	37:22c	WxYq	3plM
וְלֹא יִחַצּוּ עוֹד לְשְׁתֵּי מַמְלָכוֹת עוֹד	37:22d	WxYq	3plM

14) CPen: *casus pendens*; Defc: 생략된 형태; Impv: 명령형; InfC: 부정사 연계형; NmCl: 명사문장; PtcA: 능동분사; Qt/Qtl: 완료형; W: waw; Way: 미완료형+waw ; X: 명시된 주어; x: ‘י’나 주어를 제외하고 동사보다 선행하는 요소; Yq/Yqt: 미완료형.

<표 2> 에스겔 37:15-28의 구문적 계층 구조(계속)

계 층 구조	절	형 태	P/N/G
⌋ ולא יטמאו עוד בגלוליהם ובשקוציהם ובכל פשעיהם	37:23a	WxYq	3plM
⌋ והושעתו אתם מפל מושבתיהם	37:23b	WQtl	1sg-
⌋ אשר חטאו בהם	37:23c	xQtl	3pl-
⌋ וטהרתו אותם	37:23d	WQtl	1sg-
⌋ והיו לי לעם	37:23e	WQtl	3pl-
⌋       ואני אהיה להם לאלהים	37:23f	WXYq	1sg-
⌋       ועבדו דוד מלך עליהם	37:24a	NmCl	-----
⌋       ורועה אחד יהיה לכלם	37:24b	WXYq	3sgM
⌋       ובמשפטי ילכו	37:24c	WxYq	3plM
⌋       וחקתי ישמרו	37:24d	WxYq	3plM
⌋       ועשו אותם	37:24e	WQtl	3pl-
⌋       וישבו על-הארץ	37:25a	WQtl	3pl-
⌋       אשר נתתי לעבדי ליעקב	37:25b	xQtl	1sg-
⌋       אשר ישבו-בה אבותיכם	37:25c	xQtl	3pl-
⌋       וישבו עליה המה ובניהם	37:25d	WQtl	3pl-
⌋       ובני בנייהם עד-עולם	37:25e	NmCl	-----
⌋       ודוד עבדי נשיא להם לעולם	37:26a	WQtl	1sg-
⌋       וכרתי להם ברית שלום	37:26b	XYqt	3sgM
⌋       ברית עולם יהיה אותם	37:26c	WQtl	1sg-
⌋       ונתתם	37:26d	WQtl	1sg-
⌋       והרביתי אותם	37:26e	WQtl	1sg-
⌋       ונתתי את-מקדשי בתוכם לעולם	37:27a	WQtl	3sgM
⌋       והיה משכני עליהם	37:27b	WQtl	1sg-
⌋       והייתי להם לאלהים	37:27c	WXYq	3plM
⌋       והמה יהיו לי לעם	37:28a	WQtl	3pl-
⌋       וידעו הגוים	37:28b	PtcA	-sgM
⌋       כי אני יהוה מקדש את-ישראל	37:28c	InfC	-----
⌋       בהיות מקדשי בתוכם לעולם			

### 3.3. 하나님의 한 거룩한 나라

구문적 계층 구조의 관점에서, 에스겔 37:15에서 28절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 즉, 상징행동의 지시사항(16a-17b)과 그 상징행동의 의미(21c-28c)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때, 18a-e는 메시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메시지의 출발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에스겔의 동료들이 에스겔의 상징행동에 대해 물어야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왜 그들에게 이런 기대감을 숨기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에스겔의 상징행동(16a-17b)을 관찰한 그들이 알아야 하는 그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참여자의 관점에서 자세히 주목해보면, 에스겔의 동료들(בְּנֵי עַמִּ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허락은 받았지만, 그 메시지의 성취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상징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21c-28c)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자손들’(בְּנֵי יִשְׂרָאֵל)이라는 새로운 참여자가 3인칭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1인칭)이 에스겔의 동료들(2인칭)에게 직접 선포하면서 이 새로운 집단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에스겔의 동료들과는 다른 집단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데, 하나님의 11가지의 미래의 계획(1개의 PtcA절 + 10개의 WQtI절)은 에스겔의 동료들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제3의 집단이 참여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의 동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메시지의 내용 면에 있어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참여자는 ‘דְּתָא’이다.<sup>15)</sup> 본문에서 무려 11번이나 발견되며(16c, 16f, 17a[3번], 17b[דְּתָא], 19g, 19h, 22a, 22b, 24b) 본문에서는 분리되지 않을 한 나라를 암시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두 왕국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사상을 에스겔이 여기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은<sup>16)</sup> 문맥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11가지의 장래의 일들을 요약해 보면 문맥의 의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래에 이스라엘 산들에 거하며 한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어떤 불의에 참여치 않을 것이다(21c-23c). 유일한 목자로서

15) 이학재,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 228-230.

16) 박혜경, “에스겔의 나무와 요시야 종교개혁-에스겔 37:15~28에 나타난 상징과 역사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 (2012), 69-77.

하나님의 종 다윗은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따를 것이다(23d-24e). 이러한 하나님의 장래의 모든 일들은 영원한 언약과 그들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로 절정에 이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며 열방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27a-28c).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장래의 모든 계획은 미래에 세워질 한 거룩한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에스겔의 동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포로지로부터의 귀환과 왕조의 회복이라는 그들의 당장의 희망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쩌면, 열방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에스겔의 동료들에게도 변화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다 줄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동료들과 대화를 하지는 않는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없다. 오히려 일방적인 선포만 있을 뿐이다. 그들의 어떠한 반응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장래의 희망적인 계획도 발표만 되었을 뿐 무심하게 종결되고 만다.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이 듣고 싶었던 ‘노래’(겔 33:32)는 그들의 무사 귀환과 왕조의 회복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러나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희망을 넘어 이스라엘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하나로 통일된 신정국가였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에스겔의 동료들은 미래에 일어날 온전히 새롭게 하는 회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21c-28c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겔의 동료들에게 요구될 수 있는 회개나 회복의 간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한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여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동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한 일방적인 선포는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법정적 선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로 절정에 이르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변 열방들이 공공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회복의 대중적인 성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 자체의 목적 외에 주변 열방들이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고 이 사건을 목도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열방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적인 회복임을 부인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37:15에서 28절까지의 메시지를 구문적 계층 구조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신학적 결론을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에스겔과 함께 한 동료들과는 무관하며 미래의 이스라엘의 자손의 어느 세대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참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에스겔과 함께 한 동료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을 뿐 그 메시지에 참여하거나 반응하는 것은 전혀 기대되고 있지 않다. 둘째,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는 분리되지 않으며 어떤 불의에 관련되지 않는 한 목자를 통한 하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תָּקִים’의 반복이 강하게 시사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21c-28c)에서도 하나님의 11가지의 미래의 계획(1개의 PtcA절 + 10개의 WQt1절)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있다. 셋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기대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개나 간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도와 목적에 의해 수행되어지며, 열방이 목도하고 인식하는 전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파괴는 에스겔의 동료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선고임과 동시에, 먼 미래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계시적인 구원사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에스겔 37:15에서 28절을 본문-언어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본문에서 화자-청자의 변화를 살피고 구문적 계층 구조를 구성하였으며, 본문의 구조로 설정된 단락의 신학적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전개는 에스겔서의 히브리어 본문(MT)이 반복구나 화자와 청자의 예고치 않은 변화로 인해 세분화된 본문의 단편들을 서로 연결하도록 하고 구문적 계층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연구의 돌파구를 모색했다는 점에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문 자체의 구문적 계층 구조가 신학적인 함의를 밝히는 데에 해석학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시지가 내포하고 있던 긴장관계, 즉 예루살렘 멸망과 회복의 메시지라는 공조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의 요소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은 회복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에 참신한 기여가 예상된다. 뿐만 아

나라, 히브리어 본문(MT)의 언어적 정보와 구문론적 구조를 바탕으로 신학적 해석을 실시함으로써 성경 원문의 의미에 더욱 충실하고자 노력한 것도 앞으로 원문 연구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하겠다. 본 논고에서 밝힌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계도적이고 회유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당대의 이스라엘 세대를 심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미래 세대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자기 계시적인 회복의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주제어>(Keywords)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계획, 에스겔서의 회복, 이스라엘의 자손들, 에스겔 37:15-28, 본문-언어학적 분석, 참여자.

God's Holy Nation, God's Design, Ezekiel's Restoration, the Children of Israel, Ezekiel 37:15-28, Text-Linguistic Analysis, Participant.

(투고 일자: 2016년 7월 29일, 심사 일자: 2016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10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박영복, “에스겔 37장 7절에 나타난 인칭의 불일치 해석”, 『교회와 문화』 31 (2013), 123-141.
- 박혜경, “에스겔의 나무와 요시아 종교개혁-에스겔 37:15~28에 나타난 상징과 역사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 (2012), 59-82.
- 이학재,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 Wright, C. J. H., 『에스겔 강해: 새 마음과 새 영』,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  
생회출판부, 2008.
- Ackroyd, P. R., *Exile and Restoration. A Study of Hebrew Thought of the Sixth  
Century BC.*, London: SCM Press, 1968.
- Allen, L. C., *Ezekiel 20-48*, WBC 29, Dallas: Word Books, 1990.
- Block, D. I., *Ezekiel(Chapters 1-24)*, Grand Rapids: WEPC, 1997.
- Block, D. I., *Ezekiel(Chapters 25-48)*, Grand Rapids: WEPC, 1998.
- Carley, Keith W.,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 Joyce, P. M.,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JSOTSup 51,  
Sheffield: JSOT Press, 1989.
- Klein, R. W., *Ezekiel: The Prophet and His Message*,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88.
- Mayfield, T. D., *Literary Structure and Setting in Ezekiel*, FAT II/43, Tübingen:  
Mohr Siebeck, 2010.
- Park, Y. B., *Restoration in the Book of Ezekiel. A Text-Linguistic Analysis of Ezekiel  
33-39*, ACEBTSup 11, Bergambacht: Uitgeverij 2VM, 2013.
- Parunak, H. V. D., “Structural Studies in Ezekiel”,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78.
- Renz, Thomas,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VTSup 76, Leiden:  
Brill, 1999.
- Talstra, E., “A Hierarchy of Clauses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Ellen van  
Wolde, ed., *Narrative Syntax and the Hebrew Bible: Papers of the Tilburg  
Conference 1996*, Leiden: Brill, 1997, 85-118.
- Talstra, E., “Workshop: Clause Types, Textual Hierarchy, Translation in Exodus 19,  
20, and 24”, Ellen van Wolde, ed., *Narrative Syntax and the Hebrew  
Bible: Papers of the Tilburg Conference 1996*, Leiden: Brill, 1997,  
119-132.
- Walton, T. L., *Experimenting with Qohelet: A Text-Linguistic Approach to Reading  
Qohelet as Discourse*, ACEBTSup 5, Maastricht: Uitgeverij Shaker



Publishing, 2006.

Wevers, J. W., *Ezekiel*,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82.

Wilson, Robert R., “An Interpretation of Ezekiel's Dumbness”, *VT* 22 (1972), 91-104.

Zimmerli, W., *Ezekiel 2*, Philadelphia: Fortress, 1983.

<Abstract>

## **God's Holy Nation in His Design: Ezekiel 37:15-28**

Young Bok Park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fter the introduction of a series of actions in 37:15a-17b, God commands Ezekiel to perform a curious symbolic action (37:19a-20c) and prophesy its implied meaning (37:21a-28c) before the eyes of Ezekiel's contemporary audience ('the children of your people' in 37:18b). God's expectation that they will be asking questions concerning the meaning in 37:18a-e is located in a central position in the text, and functions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following prophecies, thus binding them together into the whole discourse.

In terms of participants, however, when one perceives the fact that the implied meaning has nothing to do with Ezekiel's contemporary audience but with 'the children of Israel' (37:21c), which is a reference to God's real people in the future (cf. 37:23d-25e and 37:27b-c), one has to ask why God intends them to watch the curious symbolic action, to listen to the hopeful message for the future, and to hear what the implications of these signs will be. In light of this detail, God's eleven actions to 'the children of Israel' (37:21c-28c) in the message need to be dealt with.

In the message of hope, the fact that unity is highlighted throughout the discourse is obvious. The root  $\text{אֶחָד}$  'one' occurs eleven times in the discourse, and each of these occurrences signify one nation that shall not be divided, and that shall be reigned over by one shepherd. What does this imply for the unity of this prophecy? In God's eleven activities, the one n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will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on the mountains of Israel, and will never be in contact with any defilement again (37:21c-23c). God's servant David as the only shepherd will rule over them, and they will observe God's ordinances and statutes (37:23d-24e). All of these actions will culminate into an eternal covenant and the establishment of God's sanctuary in their midst forever. The text concludes that God sanctifies Israel and that the nations will know it (37:27a-28c). In short, all of God's activities aim at one future holy nation. The

holy nation in God's design is going to be established by the Lord himself as the sanctified Israel in the sight of the nations, not according to any desires for restoration or plans to repent that Israel itself might have.